

투석이 필요했던 중증 급성 신손상 후 신장 기능의 회복 정도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

최유경 · 염지연 · 최경아 · 김영훈 · 이유지 · 오하영 · 김대중 · 김윤구 · 허우성 · 이정은

Renal Recovery from Severe Acute Kidney Injury Requiring Renal Replacement Therapy

Yu Kyong Choi, Ji Youn Youm, Kyung A Choi, Young-Hoon Kim, Yu-Ji Lee
Ha Young Oh, Dae Joong Kim, Yoon-Goo Kim, Wooseong Huh, Jung Eun Lee

Department of Medicine,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

목적 : 투석을 요하는 중증 급성 신손상은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지만 최종 신기능의 회복 정도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. 본 연구에서는 중증 급성 신손상 이후 신기능 회복 정도와 관련된 예후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.

방법 : 2000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급성 신손상으로 진단받고 투석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1개월 이상 생존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 중 기저 만성 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와 세뇨관 괴사 이외의 다른 급성 신손상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. 신기능 완전 회복 여부와 투석 중단 여부를 평가하였다.

결과 : 총 122명의 환자를 조사하였고 남자는 79명 (65%)이었고, 평균 나이는 54 ± 16 세였다. 이 중 87명 (71%)의 환자가 CRRT를 시행받았다. 55%는 허혈성 급성 신손상 이었으며, 평균 투석 기간은 12 (6-29)일이었다. 투석 개시 30일째 51%의 환자들이 투석을 중단하였고, 투석 개시 60일째 77%의 환자들이 투석을 중단할 수 있었다. 투석 개시 60일째 50%의 환자에서 신기능의 완전 회복을 보였다. 다변량 분석에서 고령 (HR=0.981, 95% CI 0.963-0.999), 급성 신손상의 원인이 허혈성인 경우 신독성에 비하여 (HR=0.481, 95% CI 0.238-0.974) 그리고 피뇨기간이 길수록 (HR=0.979, 95% CI 0.962-0.996)이 완전 회복률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4주 이상 투석을 시행한 환자에서도 33%에서 완전 회복을 이루었다.

결론 : 투석을 요하는 중증 급성 신손상에서 60일까지 50%가 완전 회복되었다. 신기능 회복과 관련된 독립된 예후인자로는 연령이 적을수록, 피뇨기간이 짧을수록 회복률이 높았고 원인이 허혈성인 경우 회복률이 낮았다.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급성 신손상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Key Words : 급성 신손상, 급성 신세뇨관 괴사, 예후

Acute kidney injury (AKI), Acute tubular necrosis (ATN), Progn